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6.3.3.(화) 조간	배포	2026.2.27.(금)			
담당부서	계리리스크감독국 계리감리팀	책임자	국 장	주요한	(02-3145-7240)	
		담당자	팀 장	강수원	(02-3145-7250)	
			선 임	이용세	(02-3145-7251)	
			선 임	노병윤	(02-3145-7252)	

2026년 금융감독원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

- ◆ **(개요)** 불합리한 계리가정은 이익의 과다인식, 부적정한 상품 수익성 평가 등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바,
 -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계리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분석·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.
 -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년초 조직개편을 통해 방대하고 복잡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(계리감리팀)을 신설하였습니다.
- ◆ **(업무 추진방향)**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요소인 계리가정, 현금흐름 모델링,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,
 -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평가시 보험업법상 건전성기준, 감독회계 및 기타 법규 등을 적정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.
 - 감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,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정을 유도하되,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.
 - 감리방식은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로 이원화*하고, 보험회사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감리주기 목표 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.

* 정기감리는 정기검사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, 수시감리는 상시감시·제보 등 바탕으로 실시
- ◆ **(향후계획)** 계리감리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('26.2Q)하고, 상반기중 정기감리에 착수하여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.
 - 향후 모범사례(best practice) 전파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보험부채 평가 업무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.

1. 개 요

□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는 다양한 계리가정(손해율·해지율·사업비율 등)을 산출·적용하고 있는데,

- 계리가정이 불합리한 경우 이익의 과다인식*, 부적정한 상품 수익성 평가** 등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

* 계약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상, 계리가정의 소폭 변경에도 보험부채·수익 등이 크게 달라짐(→ 예: 손해율 가정 1%p 축소시 보험손익이 5% 내외 증가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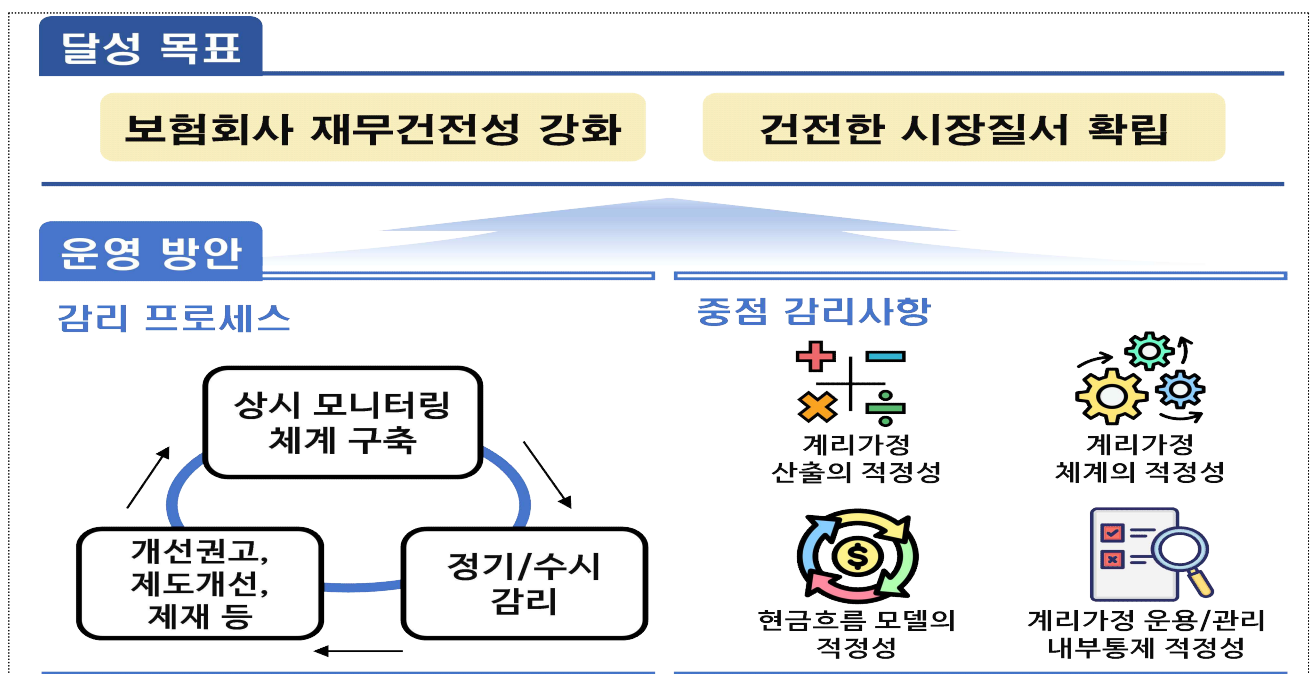
** 예) '24년중 단기납 종신보험의 낙관적 해지율 가정을 적용하여 수익성을 높인 후 경쟁적으로 판매 → 판매과정에서 '저축성 보험' 오인 등 소비자피해를 초래

□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리가정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분석·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는바,

- 금융감독원은 금년초 조직개편을 통해 방대하고 복잡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*(계리감리팀)을 신설하였습니다.

* 보험부채 평가 관련 계리적 가정, 현금흐름 모델링 등에 대한 감리·조치 등을 전담

2.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



1 | 감리의 범위

- ☐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요소인 계리가정, 현금흐름 모델링과 적절한 내부통제 운영 현황 등의 적정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,
 -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평가시 보험업법상 건전성기준, 감독회계 및 기타 법규 등을 적정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.

<감리시 중점 점검 사항>

- ① (계리가정 산출) 계리가정 산출방법(추정·보정 등)의 합리성, 산출방법의 일관된 적용 등 계리가정을 산출하는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
- ② (계리가정 체계) 계리가정별 구분 단위 설정의 합리성, 사용중인 계리가정의 종류 등 계리가정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
- ③ (현금흐름 모델) 기초서류(약관, 산출방법서 등)에 부합한 현금흐름 추정 여부, 개별 현금흐름 추정의 합리성 등 현금흐름 모델의 적정성을 점검
- ④ (내부통제) 계리가정 변경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절차의 시행 여부, 현금흐름 모델 관련 내부통제 절차 존재 여부 등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

2 | 세부 운영방안

가. 자료 입수 및 분석

[※단계] ① 자료 분석 → ② 감리 실시 → ③ 사후 조치

- ☐ (개요) 다양한 내·외부 자료를 집적하여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부정 위험을 식별하는 등 상시감시 활동을 수행합니다.
- ☐ (입수경로) 동 상시감시 활동에는 금융감독원 내부시스템, 계리가정 보고서, 업무보고서·공시 사항, 제보·민원 등이 활용될 예정입니다.

나. 감리 실시

[※단계] ① 자료 분석 → ② 감리 실시 → ③ 사후 조치

- ☐ (개요) 정기·수시감리 체계로 운영하되 감리 충실성 및 인력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합니다.
 - 보험회사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감리주기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.

- **(정기감리)** 감리대상은 정기검사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보험회사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.
 - 정기검사시 계리감리팀과 검사국이 합동반을 편성하여 계리감리 및 책임준비금 분야 검사를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**(수시감리)** 상시감시, 제보내용 등을 바탕으로 특정 회사 또는 항목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.
 - 서면감리를 원칙으로 하고 감리수행 결과 현장점검 필요시 조사 출장을 실시하거나 수시검사와 연계할 계획입니다.

다. 사후 조치

[※단계] ① 자료 분석 → ② 감리 실시 → ③ 사후 조치

- **(개요)** 감리 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개선권고, 제도 개선 및 제재(기관·인적) 등 합당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
<사후 조치 종류>

- ① (개선권고) 경미한 지적사항 또는 불명확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내리고 기한 내 변경 여부 등 확인
- ② (제도개선) 업계 전반의 기준·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 공유 및 학계,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추진
- ③ (제재조치) 보험업법, 지배구조법 등 법규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관·인적 제재조치 등을 엄정하게 부과

3. 기대 효과

- 계리가정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감리로 보험회사의 손익 왜곡과 수익성 과대평가를 통한 불건전상품의 설계·판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이와 함께 업계의 바람직한 보험부채 평가관행 확립을 유도하여 계리가정 산출·관리의 고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
- 또한, 시장참여자의 정보이용 효익을 제고하는 동시에, 보험회사의 단기 실적주의 문화 근절 등을 위한 시장규율(market discipline)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4. 향후 계획

- **(계리가정 보고서 도입)** 계리감리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‘계리가정 보고서’를 시범운영(pilot-test)을 거쳐 **최종 도입***하겠습니다.
 * 시범운영 실시(1~3월) → 의견수렴 및 최종안 마련(4~5월) → 공식 시행('26.2Q~)
- **(정기·수시감리 실시)** 상반기중 정기감리에 착수하여 보험회사의 계리 가정 적용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법규 위반사항 등에 대해 사후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.
- **(모범사례 설명회 개최)** 하반기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감리시 착안한 모범사례(best practice)를 전파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보험부채 평가 관행이 확립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.

추진계획 일람

추진과제	'26 상반기	'26 하반기
① 계리가정 보고서 시범운영 및 도입	시범운영 및 의견수렴	공식 시행
② 정기감리·수시감리 실시	정기·수시감리 프로세스 진행	
③ 모범사례 설명회 개최		설명회 개최